

무주 '반딧불이' 축구 관객들 손짓

전북현대모터스 홈경기서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홍보

무주군은 지난 9일 '전북현대모터스'와 '광주FC'의 경기가 펼쳐진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무주군의 날" 행사를 열고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행사는 경기 전 황인홍 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의 시축을 시작으로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무주반딧불축제 홍보 동영상 상영하고 무주군 태권도시범단원들의 공연을 진행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무주군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이 에스콧 키즈로 출격해 경기장의 열기를 더했으며, 입장객들에게는 '무주반딧불축제' 글자가 새겨진 엘이디(LED) 팔찌를 배부하고 무주반딧불축제 기간(8.31.~9. 8.)에 이용할 수 있는 '반딧불이 신비탐사권(4인 권)' 20매와 '향토산자연휴양림 숙박권' 10매에 대한 경품행사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현대모터스 경기 관람을 위해 경기장을 찾았던 남 씨(43세, 전주)는 "해마다 아이들 데리고 무주반딧불축제장을 찾는데 여기서 만나니까 더 반갑고 또 화면으로 반딧불이를 보니

까 올해도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기장에 건강함 기운을 실어 준 반딧불이 덕분에 올해 우리 팀 경기도 잘 풀리고 반딧불축제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무주군은 이날 경기장 동문에도 별도의 홍보 부스를 설치해 무주반딧불축제 재전위원회와 지원단, 그리고 관광안내사들이 직접 무주반딧불축제 리플릿과 축제 소식 및 정보를 담은 군정일람이, 무주 관광과 고향사랑기부 관련 홍보물 등을 배부하며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알렸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전북현대와 광주FC 팬들에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특별시 무주, 환경생태 가족축제인 무주반딧불축제를 알리게 돼 기쁘다"며 "반딧불축제에 와보셨던 분들이라면 뭐가 달라졌는지, 처음 와보시는 분들이라면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에 대해 친환경 실천에 앞장서는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진수를 느껴보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등나무운동장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특별시 무주로 힐링여행"을 주제로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환경탐사 프로그램을 비롯해 '남대천 생명+(치어방류 & 소원지 날리기)'를 비롯한 체험 판매, '부남 배소배놀이 굿놀이'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반디 빛의 향연(무주 안성낙화놀이 & 드론쇼 & 불꽃 & 레이저쇼)' 등 야간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올해는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를 기본으로 △친환경 가치 실현과 △글로벌 축제 도약, △지역주민 참여 확대 목표를 실현한다는 방침으로 친환경 축제의 모범이 되는 한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 충전, 지역사회 화합과 소통, 공존과 상생 관계 형성을 위한 기반이 될 거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반딧불축제는 1997년 '자연의 나라 무주'라는 주제로 첫선을 보인 이래로 1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5년 연속 최우수축제, 2년 연속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축제, 2024 피너클어워드, 예코투어리즘 분야 축제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은 지난 8일 장수 의암공원 야외무대에서 '2024 장수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장수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

장수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 성황리 열려

장수군(군수 최훈식)은 지난 8일 장수 의암공원 야외무대에서 '2024 장수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장수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장수에서 살아가는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군민들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참가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다너쇼 형식의 공연과 토크쇼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부 '화합의 장'에서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참가자들이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무는 시간을 가졌고 2부 '교류의 장'은 저녁 만찬과 함께 서로의 이야

기를 듣고 공감하는 인터뷰 방식의 토크쇼와 클래식 연주로 꾸며졌다.

또한, 3부 '함께 즐기는 장'에서는 인파페라 그룹 '치엘로'의 리더 테리, 민요, 장수군 귀촌 예술인과 지역출신 전문 예술인 등이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최훈식 군수는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귀농귀촌인들 간의 단합을 넘어 모든 군민과 함께 즐기고 교류하는 자리인 만큼 살기 좋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드는 데 새로운 활력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하계 빅데이터 초등캠프' 43명 참가

진안군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열린 '2024 하계 빅데이터 초등캠프'에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빅데이터 초등캠프는 지난 2022년 11월, 진안군-진안교육지원청-전북대학교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한 관·학 협약으로 진행됐다. 이에 사업단 주관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진시키고, 인공지능의 기초적인 이해와 실습을 통해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올해는 '실용주행 모빌리티 도시'를 주제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실용주행로봇(카미봇파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모빌리티 도시를 구현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했다.

또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게임 형태의 모듈별 프로젝트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우수 활동팀에 대한 시상 및 상품 수여도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전북자치도

붕어 치어 40만여마리 방류

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9월 용담호와 읍·면 공공수면에 붕어 치어 약 40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방류 사업은 내수면 자연생태 환경 복원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방류한 붕어는 관내 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으로 치어 크기는 전장 4cm 이상이며, 수산물 안전센터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합격한 검증된 종자이다.

이날 방류에는 진안군어업계연합회, 주민 등이 참여했으며, 방류수면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불법조업 감시 등을 통해 수산 자원이 증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수산 종자 관리 사업(치어방류)은 약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지난 5, 6월 메기와 쏘가리 치어 약 11만마리를 방류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대 신문방송사, 장수 지역아동센터서 재능기부

어린이기자·대학생멘토, 최훈식 장수군수와 현안 관련 인터뷰 가져

장수군(군수 최훈식)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북대학교 신문방송사의 대학생 30여 명이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센터 소속 아동 40여 명에게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학생 1명당 2~3명의 아동과 팀을 이뤄 콘텐트 기획, 인터뷰, 글쓰기, 그림그리기 등을 진행했으며 아동들이 콘텐트 제작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9일에는 어린이기자와 대학생 멘토 총 8명이 장수군청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지역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최훈식 군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훈식 군수는 "무더운 날씨에도 장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 전북대 신문방송사 대학생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의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해 모든 아동들이 희망의 꿈을 꾸는 행복장수를 만들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백운장학회, 초·중·고·대학생 대상 장학금 신청 접수

(사)백운장학회(이사장 이남근)는 관내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0일까지 장학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백운장학회는 2003년 창립 이후 매년 지역 출신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총 21회에 걸

쳐 194명에게 1억 3천여만을 지급했다.

올해인 2024학년도에는 초·중·고·대학생 8명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 있다.

백운장학회 장학금 신청 대상은 백운면에 본적이 있거나, 백운면에 주소

를 3년 이상 두고 생활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자녀가 대상이며 학업 성적과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장학생은 백운초·중학생은 학교장 추천에 의해 선발하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백운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신청서 작성 접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특화 작물 재배 농가 지원 '호응'

무주군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 작물 재배 농가에 영농자재비를 지원(50%)해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재해 예방 및 품질 관리에도 도움을 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 고령지 여름달기 시설하우스

무주군에 따르면 수박, 토마토 등 원예작물 재배 농가(7월 말 기준 1,755명 지원)에는 잡초 방제를 위한 멀칭 비닐과 부직포 등을 지원해 영농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으며 포도, 복숭아, 복분자, 수박, 딸기 품목 등 다양한 작물을 지원한다.

농가들은 "자재가 비싸서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쓰려면 부담이 큰데 군에서 뒷받침을 해주니까 든든하다"며 "작목별로 꼭 필요한 자재다보니 재배 편의는 물론, 생산성, 품질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과는 일조량을 막기 위해 반사 필름을 지원하며 △포도·블루베리 품목은 비가림 시설(기봉형, 개랑형), 필름, 관수시설, 자물, 방풍·방조망




등을 지원한다. △딸기는 재배에 필요한 상토를, △복숭아는 우산식 지주와 복숭아 부목, 관수자재, 고미 교란제 등을 지원한다.

△복분자는 지주와 차광망,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고 △흑미수박(블랙위너, 스파이크)의 육묘도 지원한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각 품목에 맞는 지원이 재배 효율을 높여 결국, 농가 소득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라며 "무주군 특화작물 재배 농가들이 더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